



팬 2개 결합하면 양면팬과 썸통으로 변신

김중목 한아뜰스 대표가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



김중목 한아뜰스 대표가 '몬스터쿠키 5종 세트'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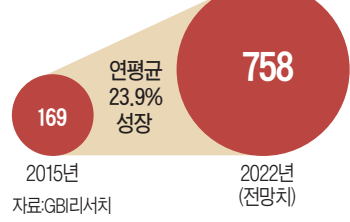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

제를 사용한 다중코팅 방식을 채택했다. 코팅제를 10μm 두께로...

한미약품·中 이노벤트바이오 차세대 항암제 개발 손잡았다

한미약품(대표 권세창·우종수)이 중국바이오기업과 차세대 항암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커지는 면역항암제 시장 (단위: 억달러)



'면역+표적' 항암치료 팬탐바디 기술 첫 적용 2019년 임상 1상 돌입

◆시행착오 통해 경험 축적 김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반 프라이팬부터 양면팬, 바비큐...

그릴·뚜껑 등 5종 세트 조리기구 6개 역할 척척 고무패킹 없는 양면팬 '대박'을 매출 2배 늘려 100억

3개와 썸통 1개, 유리뚜껑 1개로 구성돼 있으며 조리기구 6개 역할을 한다.

었다"며 "그 길로 바이어 미팅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 성능 개선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줄잇는 해외 바이어 '러브콜' 한아뜰스의 지난해 매출은 50억 원 수준이었다.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는 중국 대표 바이오기업이다.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는 중국 내 개발, 허가 및 상업화, 제품 생산을 맡는다.

이번 계약이 주목받는 것은 한미약품이 지속형 치료제 기술인 랩스카버리어 이어 두 번째로 확보한 자체 원천 기술 팬탐바디를 처음 적용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했다. 중국법인인 북경한미가 개발한 팬탐바디는 하나의 항체(세포 내에 들어온 바이러스 등에 대한 항체)를 면역세포와 암세포에 동시에 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단순히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전략을 선택하면서 중도 계약 파기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산업, 미얀마에 PHC파일 공장

11월 준공... 내년부터 양산 미얀마 건자재 시장 공략

아주산업(대표 박상일·사진)은 최근 미얀마에 현지법인인 아주미안마를 설립하고 PHC파일 생산 공장을 착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주미안마 공장은 오는 11월 말 준공된 뒤 내년 초부터 제품을 양산한다. 5만9822㎡ 부지 위에 야장장 3만9410㎡, 지상 2층 규모의 사무동과 공장동, 골재장 등으로 구성된다.



아시아 9개국 150여명 창업 아이디어 경연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30일 열린 '2017 KT&G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2월 신설법인 8237개... 사상 최대

중소기업청은 지난 2월 신설법인이 8237개로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증가했다. 지난달 신설법인 중에서도 소매업이 20.5%로 가장 비중이 컸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number, location, area, price, and description of real estate for sale.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number, location, area, price, and description of real estate for sale.

Table with columns for auction number, location, area, price, and description of real estate for sale.

2017. 3. 31. 인천지방법원 서법보좌관 서대석